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약속했던 특검마저도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월부터 유가족과 4·16연대는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요구 서명에는 서명 운동 시작 열흘 만에 6만 2천 명이 동참해 여전한 지지를 보여 줬다. 3월 8일 예은아빠 유경근 씨와 동수아빠 정성욱 씨는 식발도 마다 않고 80시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국회가 유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이번에도 유가족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로 문을 닫았다.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에 여념이 없던 박근혜는 급기야 지난 2월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후 살릴 것

일 추모대회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나서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사회노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3월 26일 범국민대회(가)에도 참가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목소리를 모아낼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4·16연대가 주축이 돼 세월호 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여러 대학들에서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여러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이지 뜻 깊고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에 힘을 보태자.

2016년 3월 1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

함께 참가합시다

문의 :

3·26 범국민대회(가)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

기억하라! 리멤버 콘서트(가)
4월 9일 오후 6시 서울

4월 16일 참사 2주기 관련 일정
합동 분향식: 오전 10시 안산 합동분향소
안산 걷기대회: 오후 2시 안산
범국민 추모대회: 오후 7시 서울